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병수

소셜네트워크와 직접 민주주의

미국에선 지금 기존의 경제질서에 저항하는 운동이 뉴욕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자는 구호 아래 3주째 접어든 젊은이들의 데모는 잠깐 모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은 아예 인근 공원에 노숙을 하며 데모를 하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불만을 기존 정당정치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느낀 사람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전달된 정보에 따라 데모에 참석하여 그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기업의 남용과 탐욕, 월스트리트 파워에 반대하는 데모가 지난 9월 17일 뉴욕에서 시작되어 10월 2일 일요일에는 700명의 참가자가 도로 점거라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이런 취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보스톤 등 여타 대도시에서도 데모를 시작했다.

지금 데모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주로 80년대 또는 90년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들은 물질적으로 큰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지내 왔고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소통에 익숙한 세대다.

부시 대통령 말기 때 시작된 경제위기에 직면한 젊은이들은 대학에 다닐 당시엔 비싼 등록금을 지불 했고, 졸업 후엔 일자리가 없어 융자받은 부채에 허덕인다. 또한, 직장을 찾기는커녕 인턴십도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 세대들은 지금 좌절을 경험하면서 낙담하지 않고 그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런 불만의 소리가 친구들 사이의 대화에서나 술집에서 하는 토론 속의 불평으로 끝났겠지만, 이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 덕분에 불만이나 다양한 의견들이 인터넷에서 수렴되어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데모 참가자는 온라인 조직을 통해서 돈, 음식, 담요 등을 기부받기도 하고, 새로운 참가자들도 모으고 있다.

그 이전 세대들도 현실에 불만이 많은 것은 마찬가지다. 경기침체로 실직한 사람들이 은행으로부터 집을 몰수당한 경우도 많이 있다. 금융기관의 방만한 주택자금 대출로 시작된 경제 위기는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금으로 진정되었지만 정부지원이 주택상환금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다.

금융기관들이 CEO들의 경제적 희생 없이 직원 감소를 통해 이익금을 늘리려고 하는 전략은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아 왔고, 또한 전반적으로 미국 전체의 부가 상위 몇 퍼센트의 사람들에게 쏠리면서 국민의 불만이 증대되어 왔다.

상업분야에서는 이미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가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예전에는 구매를 할 때 가족, 친지, 친구 등 몇몇 지인의 사용 경험이나 기업 또는 상인들이 보내는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가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정보 창구 덕분으로 더 많은 구매처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과 서적분야 판매에서 보더스(Borders)라는 서점은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해버렸고, 반스엔노블스(Banes & Novels)라는 서점은 살아남았지만 눅이라는 이북리더(e-book reader)를 만들 만큼 인터넷 시장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대신 아마존(Amazon.com) 같은 온라인 기업이 생겨나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최근에는 월마트(Wal-Mart) 같은 거대 기업과 경쟁하는 상황이 되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운동은 지난 봄 아랍국가에서 억압적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절대적인 일조를 했다. 미국의 경우도 특정 정당이 좋아서 지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 당을 비교했을 때 덜 나쁘다고 느껴지는 당(the lesser of two evils)을 골라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어떤 이는 이 데모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한국의 경우도 안철수 붐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기존의 정당정치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단합하는 시대에, 만약 정당들이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아 사라졌듯이 정당들도 기반을 잃고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풀 뿌리로부터의 운동이 어디로 귀착할 것인가는 시민사회와 정치인들에 달려있다. 시민사회가 기존의 정치조직에 기대를 걸지 않거나, 또는 기존정치인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는 제3의 신 세력이 대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치자금 문제로 미국이나 한국에서 정치인의 이미지가 경제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인식된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한 비용절감을 한 아마존 같은 기업처럼 인터넷 정치조직이 저비용으로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美 엘론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 칼럼

긴장성두통 해소법은 명상·스트레칭

윤정웅

두통의 90% 이상이 긴장성 두통이다. 긴장성 두통은 감정적 혹은 신체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목이나 어깨, 등 근육의 긴장이나 통증이 동반되기도 하며 이전에 목 부위의 외상이나 관절염을 앓은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긴장성 두통은 머리 양쪽이나 앞머리 혹은 뒷머리 부분이 뻐근하게 아프거나 지근거리는 통증이 오기도 한다. 머리 전체가 무겁고 띵하며, 머리 주위를 띠로 꽉 둘러 맨 듯 아플 수도 있다. 목덜미나 어깨가 뻑뻑하고 심하게 당기는 통증이 수반되기도 한다. 오전보다 오후로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며, 심할 경우 수일씩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러한 두통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평소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거나 우울증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긴장성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두통이 뇌의 이상에 의한 심각한 병이 아님을 환자 스스로가 먼저 인식해야 한다. 또한 주변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고, 적당한 운동과 여가 활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정된 정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두통이 생겼을 경우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여 내쉬는 것을 반복하며 긴장을 푼다. 스트레칭이나 이완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 아픈 부위에 따뜻한 찜질을 하거나 온수 샤워를 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스피린, 아세타아미노펜,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진통제를 너무 자주 복용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 될 수 있으니 처방에 의해 복용하도록 한다.

최선의 예방법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물론 육체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책상에 앉아서 일할 때 자세를 수시로 바꿔주고 1시간마다 30초씩 스트레칭을 해 준다. 특히 턱·목·어깨·등 근육 이완을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일할 때 어깨와 목의 자세를 평가하고 교정할 수 있을 경우 해주는 것이 좋다. 주기적인 운동과 마사지로 육체적 긴장을 푸는 것이 좋다.

카페인 섭취는 하루 1~2잔 이상 하지 않는다. 카페인 함유 음료 섭취 후 몇 시간이 지난 후 또다시 카페인을 복용하지 않으면 카페인 금단 증상으로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서서히 카페인 섭취를 줄이도록 한다.

두통의 정도가 심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처치로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 일주일에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두통의 빈도가 늘어나거나 통증이 점점 심해질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그리고 운동이나 성행위·기침·코 풀기 등을 실시한 후에 두통이 발생한 경우, 두통 때문에 자다가 깨거나 하루 중 아침 두통 증상이 심할 경우 등에도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사무실과 좁은 공간에서는 가능한 체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의자에 앉은 자세 그대로 상체를 앞으로 굽혔다 폈다 반복해주거나 등을 펴고 똑바로 앉아 양쪽 어깨를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반복해줘도 좋다.

또 의자에 앉은 자세 그대로 머리만 상하·좌우로 반복해 움직여도 효과가 있으며, 똑바로 선 자세에서 양팔을 뒤로 젖히면서 가슴을 내민 후 숨을 크게 들이마신다. 이어 몸을 앞으로 구부리면서 숨을 뱉어내고, 선 자세에서 목을 상하·좌우로 반복해 움직여 마무리하면 효과가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원장〉

기 고

의료폐기장 특별감사 한 점 의혹 없어야

배진하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축허가를 둘러싼 광주시의 특별감사 결과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반대주민대책위를 비롯해 그 결과에 대해 주목하는 시선들이 적지 않다.

특별감사 결과발표가 늦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당초 광주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예정대로 결과를 발표했어야 하나, 뚜렷한 입장도 없이 이제는 주민대책위가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니 도대체 특별감사는 왜 진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는 9월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그 후에도 두 차례 정도 연기되었고, 이번에는 다시 주민들이 공사업체를 상대로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선고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남구청에 대한 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고 현재까지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사결과 발표에 따라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알려져 있는바, 지난 8월 광주시 도시계획과에서 국토해양부로 보낸 질의회신에는 양과동 폐기물 처리시설처럼 1500평방미터 이상 연접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으며, 또한 건축허가에 앞서 주민의 견청취, 도시계획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답변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논란이 이는 가운데도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은 현재 90%가 넘는 공정률로 거의 공사가 완료단계에 접어들고 해당업체는 공사비 100억 중 90억을 지출했다. 건축허가에 대한 법적문제가 대두된다면 허가를 낸 남구청 등 관련 기관 등은 수많은 인적, 물적 비용을 물어야 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 90% 넘는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건축허가 취소 결론이 날 경우 백억 원이 넘는 소송과 함께 관련 공무원 9명 가량의 징계와 구상권 청구 등의 파장이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대책위의 주장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도 주민들의 대규모 집회와 소송 등 반발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그 후유증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차대한 상황에 광주시는 특별감사결과만 기다리게 해놓고 이제와 주민대책위의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니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겠는가. 광주시에서 나서서 공사중지 절차를 밟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했어야 함이 마땅하다.

광주시는 하루빨리 감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해 시간 끌기만 하며 더욱 증폭되고 있는 의혹을 덮으려 한다면, 이후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사실이 축소됨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광주시 남구의원〉

기업 면접관 몰상식한 태도 문제 많다

동생이 모 기업의 면접을 보고 와서 화를 참지 못했다. 면접을 망친 모양인 듯 해서 위로를 하려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었다. "면접관의 어이없는 질문과 인신공격성 질문에 너무 상처받았다"며 취업난을 무기로 삼는 면접관의 태도를 이야기했다.

면접관중 한 명이 동생에게 "왜 대기업을 안 가고 중소기업에 지원했느냐?"라고 질문하자 동생은 "작은 기업에서 더 많은 활동과 능력을 발휘해 보고 싶어서 지원했다"고 답했다고 했다.

물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지원자 나름대로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에 합당한 대답을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 면접관이 대뜸 "대기업에 떨어지고 갈데 없어서 이곳으로 온 거 아니냐?"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사실 중소기업에 지원한 이유가 대기업에 떨어져서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동생은 정말 중소기업에서 더 큰 뜻을 펼치고 싶어 지원했다. 설사 대기업 스펙이지만 하향 지원했다 한들 그건 잘못이 아니다.

요즘 일부 면접관들이 지원자 앞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심지어 반말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또 수험생의 학력이나 가족사항 등을 가지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유능한 인재를 뽑기에 앞서 기업 면접관들의 자질과 예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류용규·광주시 남구 서1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사 설

지역현안 외면하는 겉핥기식 국정감사

국정감사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틀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핵심 쟁점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대부분 '재탕' 수준으로 일관해 전혀 생동감을 주지 못했다.

또한 이미 알려진 내용들을 확인하는 수준의 '겉핥기식' 질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쳤고, 고질병인 의원들의 자리 이동도 여전했다. 특히 의원들이 '여수엑스포 현장 시찰'을 이유로 국감장에 1시간이나 늦게 나타나 도청과 경찰청 간부 100여 명이 마냥 기다리는 등 '지각 국감'의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F1(포뮬러원) 대회와 4대강사업, 여수엑스포 등을 집중 거론했으나 모두가 이미 논의된 사안인데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변죽만 울린 수준이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F1 대회의 정부 지원 의견보다는 '적자 타령' 내지 '중단'까지 언급해 사전 이해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지방에 대한 국감은 지역현안이 무엇이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사안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게 목적이다. 의원들은 수감기관에 대해 엄한 비판을 하되 대안은 물론 결과까지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고, 잘못된 정책 결정을 바로 잡는 것이 의원들이 해야 할 책무다.

그런데도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문제 제기로 일관한다면 생산적인 국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의 의식과 행태가 이 정도이니 상시국감론이 나오고, 심지어 폐기론마저 제기되는 게 아닌가.

의원들은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직시해야 한다. 시민단체 역시 의원들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 잡고, 국정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태 의원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광양항 체선 전국 최고, 시설 확장 서둘러야

〈滯船〉

광양항의 체선(滯船)이 국내 주요 항만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부산·인천·울산항 등 주요 4대 항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양항의 경우 올 상반기에 입항한 1만906척 가운데 5.1%에 해당하는 558대가 체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체선일도 1.4일에 달해 993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이 같은 광양항의 체선율과 체선일은 4대 주요 항만의 평균 3.1%와 1.4일에 비해 각각 2.0%포인트, 0.1일 높은 것으로, 울산항과 함께 체선으로 인한 손실이 제일 컸다.

광양항의 체선율이 높은 이유는 포스코와 여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화물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접안 등 부두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야간 입출항 제한·하역료 과부담 등 운영상의 문제로 체선이 발생하는 울산항 등 다른 항구와는 달리 광양항은 물동량을 접안 등 부두시설 부족으로 제때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1993년부터 광양·부산항 '투포트 시스템(양항 정책)' 개발계획에 따라 광양항을 개발했다. 하지만, 물동량 부족 등을 이유로 그동안 광양항에 대한 투자가 지지부진하고, 심지어 '투포트 정책' 폐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지난해 국감 자료에 따르면 광양항 예산 집행률이 36%대로 저조하고, 광양항 개발사업비 등 170여억 원의 예산을 부산항에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말로만 '투 포트'를 외칠 뿐 광양항 개발을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광양항의 체선이 전국 최고인 것은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반증한다. 또한 광양항이 동북아 물류 허브항으로서의 경쟁력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 '투 포트'에 대한 논란을 접고 광양항의 시설 확충과 각종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영화의 힘

광주 장애인 특수학교 '인화학교' 법인 허가가 취소됐다. 달걀 투척, 천막 농성, 1인 시위, 행정 소송까지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아무 반응이 없던 인화학원이 끝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지난 달 22일 개봉 된 이래 관객 300만 돌파를 앞두고 있는 영화 '도가니'가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세상을 뒤엎고, 재수사를 이끈 '스크린의 힘'을 보여준 사례는 많다.

'이영호 군 유괴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그놈 목소리'는 아동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운동을 일으켰다. 또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란 영화는 사형제 폐지 여론을 조성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영화 '식코'가 의료 개혁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1991년 당시 9살이던 이형호군 유괴사건을 다룬 영화 '그놈 목소리'는 공소시효 15년이 지난 시점인 2007년 영화가 개봉되자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끓었다.

지난 2006년 개봉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단순한 러브 스토리를 넘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움직임을 이끌어 냈다. 미국 영화 '식코'는 미국의 낙후된 의료 현실을 풍자적으로 묘사해 지난해 의료개혁법안이 통과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심영섭 영화평론가는 "사회적 관점에서 잠자고 있던 국민들의 분노가 영화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생생함으로 인해 더욱 더 사건의 영향과 충격의 진폭을 크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영화가 불러온 관심은 대부분 법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만큼 오래가지 못했다. 하지만 영화 '도가니'도 1회성의 여론몰이에 그쳐서는 안된다. '도가니'를 통해 들끓고 있는 한국 사회의 치부에 대한 반성과 이를 토대로 한 완전한 개선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6년 전 침묵했던 언론들과 기자들도 이제는 부끄러운 성찰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최재호 정경부 차장l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